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외과 이진아 교수

어렵게 느껴졌던 시와 가까워지기

'공대생의 가슴을 울린 시강의'
이진아 교수가 추천하는 〈시를 잊은 그대에게〉

「성모공동체가 권하는 책」의 원고를 의뢰받고 어떤 책이 좋을까 고민하며 책장을 들여다봤다. 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설과 자기계발 서적, 그 외에는 육아 서적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들어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 비해 책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잠 잘 시간도 없이 바쁜 요즘 개개인의 취향을 타는 소설보다는 한때는 가까웠지만 지금은 낯설고 어색한 시에 대해 쓰인 책을 꺼내들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다시 깨닫게 하는 책

월요일 저녁 KBS1 'TV 책을 보다'에서도 소개되었던 이 책은 저자가 한양대학교에서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시 읽기 교양수업을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으로 다양한 주제와 그와 관련된 시를 엮어서 보여주고 있다. 사실 시라고 하면 모호하고 알기 어려우며 학교 수업이나 시험을 위해 공부한 것 이외에는 접하기가 어려웠다. 이 책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친숙한 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시에 대해 쓴 책이니 딱딱하겠지'라는 선입견과 달리 이 책은 읽기 어렵지 않고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큼 쉽고 재미있으며, 술술 읽힌다. 오히려 약간 문체가 가볍다고도 느낄 수 있지만 그렇기에 어려운 설명이 아니어서 쉽게 이해되고 와 닿는다. 그리고 읽다 보면 시에 친숙해지게 되고 다른 다양한 시집도 읽고 싶어진다. 저자의 머리말에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의 의술, 법률, 사업, 기술 모두 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글귀가 있다. 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짬을 내어 잊고 있었던 시 읽기의 즐거움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친숙한 시는 새롭게
다가오고,
잊혀져가던 시에 대한
감성을 깨워주며,

새로운 시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주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